

■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앞생주
으명님
시와께
나는영원
다니오
백
여
밀물

호
言
有
主



작품 : 박다두 타데오 (반송성당·부산가톨릭서예인회)

主
有
永
生
之
言

'주주 有유 永영 生생 之지 言언'을 뜻하는 상형자

연중 제21주일

제 1 독서 여호수아기 24,1~2ㄱ.15~17.18ㄴㄷ

화답송 시편 34(33),2~3.16~17.18~19.20~21.22~23(◎ 9ㄱ)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후렴) 주 님 이 얼 마 나 좋으신 지 너희는 맛 보고 깨 달 아 라.

1.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2.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

3.의인들이 올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

4.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

에서 구하시리라. 그의 뼈를 고스란히 지켜 주시니, 뼈마디 하나도 겪이지 않으리라. ◎

5.악인은 악행으로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 죽값을 받으리라.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죽값을 벗으리라. ◎

제 2 독서 예페소서 5,21~32

복음환호송 요한 6,63.68 참조

◎ 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 음 요한 6,60ㄴ~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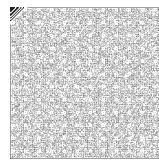
영성체송 시편 104(103),13~15 참조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강론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의 언행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행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일치와 사랑을 이룰 수도 있지만 서로의 다름 앞에 자기 고집 때문에 서로 무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 다른 점 앞에 어떤 자세일까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거북해하며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차이를 모르고 못 받아들여 그들의 이해방식 기준대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인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영원함을 갈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느님이지만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치하려 하십니다. 우리

를 향한 예수님의 근원적 사랑은 원죄로 죄와 죽음에 묶여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다시 하느님과 일치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말씀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려고 목숨을 바쳐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반면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도 서로 다름 앞에서 자주 넘어지고 영원을 향하기에는 불가능한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절감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인간은 사랑하기 위해 살지만 힘이 부족하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배우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즉,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여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자기의 감정이나 이해방식에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또 자신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이웃과

의 관계 안에서는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알아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이해 방식을 살펴 사랑 앞에 이해 방식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시 응답하여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 모든 방식을 뛰어 넘는 사랑을 드러낸 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려 하시기에 우리도 이 사랑에 용기를 내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이해 방식을 뛰어 넘는 사랑을 하도록 자신을 내려놓는 응답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손 하나 까딱 않고 포부만 키우다가 죽는다.”(잠언 21,25)

신앙에서도 인생에서도
포부는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는 아주 거창하고 훌륭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일상은 어찌 이리도 횡한지....
...
기도하기 좋은 때가 다가옵니다.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이상일

타데오 신부
외방수녀원 상주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 MHz 94.3 MHz 101.5 MHz**오늘의 강론** 월~토 06:508.27(월)~28(화)
이상일 신부(외방수녀원 상주)8.29(수)~9.1(토)
이종민 신부(연산성당 보좌)**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진행 : 우치민 아나운서

8.29(수) 오늘의 가톨릭 뉴스
- 남산성당 본당 30주년 기념 성화상영
출연 : 임영천 헬레나 리포터**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8.31(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밀양성당 주임)
우린 찬양사도 출연 : 선율

교구장의 사임과 교구장 서리 임명 공지

공경하올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2018년 8월 18일자로 건강상 사임을 제출한 황철수 바오로 주교의 교구장직 사임을 윤허하시고, 아래와 같이 손삼석 요셉 주교를 ‘교구장 서리’로 임명하셨습니다.

- 아래 -

인류복음화성 교령

공경하올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부여하신 특별권한으로,
인류복음화성은 황철수 바오로 주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부산 교구장의
모든 권한을 수행할 ‘교구장 서리’(Administrator apostolicus)에,
손삼석 요셉 주교를 임명합니다.

2018년 8월 18일

인류복음화성 장관 페르난도 필로니 초기경

* 사임한 교구장의 퇴임과 관련한 행사는 없으며, 아래의 인사로 대신합니다.

찬미예수님,

공경하올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2018년 8월 18일자로 건강상 사임을 제출한 저, 황철수 바오로의 교구장직 사임을 윤허하시고, 손삼석 요셉 주교님을 부산교구의 ‘교구장 서리’로 임명하셨습니다.

이 임명날짜로부터 부산교구 교구장의 모든 권한과 직무를 손삼석 주교님께서 수행하십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 하신 교구 공동체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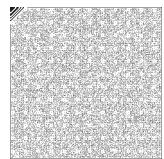
주님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십시오.

황철수 바오로 주교 올림

- 교구장 서리 : 교구장 주교 사임, 이동, 선종 등의 유고로 주교좌(교구장 주교의 자리) 공석 시, 신임 교구장이 임명되지 않거나 교구장직을 자동 승계할 부교구장이 없으면 교황청에서 보좌주교 또는 유관 교구장 주교 등을 서리로 임명한다. 교구장 서리는 교회법상 교구장 주교와 동등시된다.



선택



영국 글래스고 출장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암스테르담을 거쳐 인천으로 향하는 연결편을 이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트에 긴 줄로 늘어선 사람들이 항공사 직원을 둘러싸고 응성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강풍을 동반한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암스테르담 도착/출발 편이 모두 결항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결항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림 끝에 제 차례가 되어 체크인 카운트에서 도움을 요청하니, 다음날 런던을 통해 인천으로 귀국하는 연결 편으로 예약 변경을 해주고 공항 근처 호텔에서의 숙박 쿠폰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매우 난처했습니다. 예정대로 귀국하면 다음날 계획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겠지만, 뜻밖의 상황 발생으로 그 다음 일정들이 차례로 꼬이게 되었

기 때문입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암스테르담행 항공편 취소와 그에 따른 모든 일정/여정 변경은 전혀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항공사로서도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예정에도 없었던 공항 인근 호텔에서 하릴없이 하룻밤을 보내면서 오늘의 독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1독서 말씀에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여호 24,15)라는 주님의 말씀이, 예기치 않았던 오늘의 상황에 대해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아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호텔에 머무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 지나간 삶 속에서 오늘의 상황과 같이,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사건, 사고들이 수도 없이 저와 함께 했음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뜻밖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만

을 선택한 것보다는 여행처럼 다른 무엇인가에 더 많이 매달렸던 것 같아 문득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번 여행에서와 같은 뜻하지 않은 상황들을 맞이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주님 대신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섬기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게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우리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해 봅니다. 대체 항공편으로라도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도움 주신 것 만 해도 주님이 제게 일으키신 은총의 큰 표징(여호 24,17 참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왜 하필 오늘 내게 이런 일이?”라는 원망이 들었지만, 말씀 묵상과 함께, 오늘의 이 상황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 창 식 프란치스코

사직대건성당•수필가 csha@pnu.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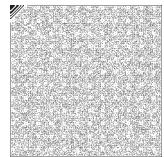
저는 지금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앞으로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직업을 두고 고민하다 보면, 그 직업이 사회적으로 악용되는 부분이나, 비윤리적인 부분이 보여서 고민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직업을 선택하면서, 사회적인 성공이나 보수를 따지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으려는 마음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정답인 듯합니다. 어떤 직업이 더 윤리적인지, 또 반대로 비윤리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일도 그것을 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나쁜 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이라고 일컬어지는 직업들에는 그 일을 수행하는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이 있고,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자격에는 그에 따른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 권한을 어떻

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진 직업의 가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일수록 그 직업인이 가져야 하는 ‘직업윤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하고, 어떤 뜻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지가 분명해지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홍성민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parvus@hanmail.net



“어머니! 당신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가정의 중심입니다.” 이러한 슬로건을 내건 교구 성모어머니학교는, 어머니의 정체성을 찾고 현대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위치를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상 자녀들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생명의 원천이요 삶의 모델이며, 더 나아가 신앙의 근원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고 가족들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비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성모어머니학교이다. 지난 2013년 가정사 목국의 연구와 기획을 거쳐 2014년 4월 봉사자 양성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 제1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그간 수료생 어머니들은 성모어머니학교로 인해 ‘일상’과 ‘신앙’을 함께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교육 후 자

녀에게 다가가 대화하고 관심을 누는 과정을 통해 교육이 실생활로 이어져 도움이 됐다.”고 했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엄마로서 한 층 성숙해진 기분으로 성모님을 본 받아 자녀들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성모어머니학교를 통해 자녀에게 필요한 건 ‘좋은 엄마’보다는 ‘행복한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모어머니학교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렇게 성모어머니학교는 어머니에게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여 자신의 소중한 사명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다른 어머니학교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5기 성모어머니학교 (5주 과정)

일 시 : 10/11~11/8 매주 목요일 10시~15시
 접 수 : 8/15(수)~9/30(일) 선착순 49명 (종교 무관)
 문 의 : 010-9907-1767, 010-2202-0470

5주간 진행되는 성모어머니학교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목요일마다 웃음과 감동을 안겨주는 그야말로 ‘힐링 프로그램’이다. 더구나 이 교육은 종교교육이나 교리수업이 아니라 순수한 가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종교와 상관없이 자녀를 둔 어머니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행복한 성가정으로 가는 지름길인 ‘성모어머니학교’를 통해 사랑을 더하고 행복을 나누고 싶지 않은가?

■ 가정사목국



환경과 생명

작은 희망

벼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종자에 따라 9월에도 볼 수 있지만 거의 8월이면 온 산하의 들판 가득 흐드러진 벼꽃을 볼 수 있습니다. 꽃잎도 꽃받침대로 없어 장미만큼, 백합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그 소박한 자태는 피와 살이 되어 온몸을 휘감는 생명의 밥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인지 다들 벼꽃이 핀다고 하기보다 이삭이 팬다고 합니다. 이삭 하나에 작은 벼꽃 100여 송이가 피고, 그 한 송이 꽂마다 쌀 한 알 한 알이 영그는 모습은 그렇게 흔해도 가장 찬란하고 신비롭습니다. 과연 차고 넘쳐 무심코 지나치다가 그 가치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북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에서 구전되는 <코요테의 노래>가 있습니다. “코요테야, 코요테야, 내게 말해 줄래, / 무엇이 마술인지? / 마술은 그해의 첫 딸기를 먹는 것, / 그리고 여름비 속에 뛰노는 /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이처럼

가장 평범해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자연 속에서 매일 드러납니다. 이 시대가 크고 화려하며 특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예수님은 에둘러 낮은 곳으로, 작은 것에서 당신 하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셨습니다. 어린이도, 가난한 이도, 죄인도 그렇게 낮은 곳에 함초롬히 피어난 작은 꽃입니다. 이 꽃 한 송이에 숨겨진 신앙의 진리를 깨닫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채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숨 막히는 폭염에 기진맥진 겨우 하루를 버텨내는 이 계절이지만 이 속에서도 창조의 신비는 감출 수 없는 법입니다. 인간 문명이 만들어낸 살인적인 지구온난화 현상이 인류 공동의 집을 위협하고 있지만, 희망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최첨단 과학 문명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희망은 오직 예수님이 사랑해 마지않는 작은 생명에서 피어오릅니다.

■ 우리농 본부(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교구
소식



부산가정성당 성전 봉헌식

지난 8월 19일(일) 14:00 ‘부산시 동구 초량동 49-16번지’ 현지에서 황철수 주교를 비롯한 손삼석 주교, 교구 사제단, 부산시장, 동구청장

교 구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월미사(울산)

· 8.31(금) 13:30(목주기도), 14:00(미사)
· 월평성당 / 문의 : 629-8760~2(성소국)

9월 교구 혼인강좌 안내

[부산 지역] 9.9(일), 9.16(일) 15:00~18:50
예비부부와 기혼부부 모두 수강 가능
100% 인터넷 접수 / 선착순 50커플 / 당일접수 불가
문의 : 462-1870, www.bccenter.or.kr(가톨릭센터)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9월 행사

· 9.28(금) · 전주교구 전동성당
회비 : 1만 5천원(입금 : 부산은행 041-01-027178-1 천주교부산교구) / 대상 :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1번 이상 참석자에 한하여 접수
신청 : 9.14(금)까지(선착순) 팩스(629-8764) 및 홈페이지 / 문의 : 629-8760(성소국)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1996. 8. 29. 김창문(요셉) 신부님

주보 6, 7면 하단 광고 신청 접수

- ▶ 게재 기간 2018년 10, 11, 12월(3개월)
- ▶ 접 수 9월 1일(토)부터 선착순
이메일(jubo@catb.kr) 혹은 팩스(629-8756)
- ▶ 금 액 1회 6만원(기본 3회 18만원)
- ▶ 서 류 교적사본(본인) 혹은 본당신부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광고 신청서
- ▶ 신청서 교구 홈페이지 '2500호주보'에서
다운로드(www.catholicbusan.or.kr)
- ▶ 문 의 629-8752

등 300여 명
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가
정성당 성전
봉헌식’이

있었다. 이날 미사를 주례한 황철
수 주교는 강론을 통해 “앞으로 부
산가정성당을 통해서 지치고 힘든
모든 가정이 용기를 얻게 되고, 또

본 당

중앙성당 설립 70주년 기념행사

기념미사 : 9.9(일) 11:00 교종미사
기념음악회 : 9.17(월) 19:30 대성전
문의 : 246-4284 / 당일 주차장 이용불가

대연성당 영어교실

기초반 : 10:00~10:50 화/목반, 수/금반
중급반 : 11:00~11:50 화/목반, 수/금반
회화반 : 12:00~12:50 화/목반, 수/금반
· 9.1~10.31 (2개월 3만원) / 문의 : 010-8501-9250

기관·제 단체·위원회

바오로아람터 후원회 미사

· 8.27(월) 10:30 · 바오로아람터
문의 : 514-6988

부산 미バ회 후원회 미사

· 8.31(금) 10:00 · 세계오자선교회차량지원
· 문현성당 / 문의 : 010-9312-4228(회장)

울산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월미사

· 9.4(화) 13:00 연합elly기도, 14:00 미사
· 복산성당 소성전 / 문의 : 010-2428-5785

부산교구 순교자 치명 150주년 기념

순교자 현양 음악회

일 시. 9월 10일(월) 19:30
장 소.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성전

순교자 현양 미사

일 시. 9월 20일(목) 11:00
장 소. 오륜대순교자성지

한 새로운 가정, 부부의 인
생을 출발하는 젊은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길
로서 나아가며, 뜻 깊은 삶이 주어
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부산가정성당은 전국 교구 최초의
'혼인미사 특화성당'과 '가정사목 지
원센터'를 겸하는 사목을 할 계획이
며, 나이가 가정복음화의 새로운 이정
표를 제시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선교거
점 역할까지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청소년, 젊은이 기도회
- 8.26(일) 13:30 전포성당(청소년)
- 8.27(월) 19:30 전포성당(젊은이)
- 8.29(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후원회 월미사
- 8.27(월) 11:00~15:10
중식제공, 양형영성체, 도우와 안수
- 수요 치유기도회
- 8.29(수) 11:00~16:00
중식 제공, 버스는 운행표 참조
- 철야기도회
- 8.31(금) 22:30~9.1(토) 04:00
강사 : 이선희 자매(울산대리구)
- 제18차 무료 치유대피정
- 9.14(금) 22:30~15(토) 17:00
철야기도회 연장 (철야버스 동일운행)
미사, 세면도구 준비(참가비 없음)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성모신심피정

· 8.27(월) 09:30~16:30 · 푸른군대 경당
강사 : 신은근 신부(마산교구)
문의 : 646-3746(파티마의세계사도직)

부산그레고리오합창단 월미사 및 단원모집

· 8.29(수) 19:30 · 망미성당 / 단장 : 김종민
그레고리오성가에 관심있고 함께 활동하실 남성
단원 입단 문의 : 010-7339-8545

혼인미사 예약 및 예식 안내

토, 일, 공휴일 : 11시, 13시, 15시, 17시

혼인미사 예약 접수 : 9.2(일) 09시부터

문의 및 접수 : 051)441-3500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묵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서울공예사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아) 631-5006, 631-5007

황인환(가톨로) · 김경자(모니카)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패를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주)발해투어

1. 8/27 나가사카성지순례
카멜 4일 47만 9천원

2. 대마도 매일 12만 9천원~

3. 일본/히라도 매일

카멜 3박4일 19만 9천원~

황 프란치스코 253-5887

물 새는 곳을 정확히 찾아, 보수

삼일누수탐지공사

수도배관, 보일러배관 등 각종 누수
인터넷 검색어 : 삼일누수

202-3011

이 국 영 (베드로)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준(모터스)

자동차매매상사

자동차 매매, 수출, 말소, 폐차

대표전화: 010-3599-6420

현 종 삼(요셉) 관허 제9호

하지정맥중점클리닉

길 맥 외과의원

박우일(요셉), 박동우(안드레아)

754-9975~6

센텀시티역 11,13번 출구 센텀임페리얼워 15층

법무법인 율강

민사, 형사, 가사, 회생, 파산,

조세, 행정 등 각종법률상담

대표변호사. 임 경 표(세례자요한)

717-2570, 010-7455-1031

거제주단

주단, 포목, 혼수, 예단 도소매

박대수(야고보), 최복순(데레사)

632-0696

010-9331-6633

진시장 1층 주단부 318호 1층 8호문 안쪽 회장실 옆

성요셉의 집

입 소 상 담

(055) 365-1910

장기요양등급 1~5등급

(1~4인실 선택가능)

www.st-joseph.co.kr

여성연합회 여성단체장 및 상담봉사자 교육

· 9.3(월) 10:00~16:00 · 교구청 5층 강당

주제 : 성찰을 통한 나의 구원역사

강사 : 홍영택 신부 / 문의 : 441-1522

음악교육원 기타교실(성가반주) 개강

개강 : 9.3(월) 10:00 (12주 과정)

지도 : 황성민 교수 / 문의 : 517-8241, 2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용도 : 사무실 6층 (51,20평)

문의 : 462-1870(행정실)

부산가톨릭신학원 2018년 2학기 심화과정

· 9.7~11.23 매주 금요일 14:00~17:00(총 10회)

수강료 : 20만원 / 대상 : 부산가톨릭신학원 졸업생

1교시 : 성령안에 사는 우리들 - 김종훈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 2교시 : 조선의 문화와 천주교 - 손숙경 교수(동아대학교)

· 부산가톨릭신학원 / 문의 : 464-7591

가톨릭농아인선교회 9월 수화교실 수강생 모집

기초반, 중급반 개강 : 9.4(화) 19:00~20:30

주 2회(화, 목) / 수강료 : 5만원 (교재비 별도)

고급반 개강 : 9.6(목) 19:00~21:00

주 1회(목) / 수강료 : 7만원 (교재비 별도)

3개월 과정 / 문의 : 751-8693, 010-8001-4435

* 수강 인원 부족 시 폐강될 수도 있음

부산가톨릭대학교

<2018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교육 : 9.10(월)~13(목) 14:00~18:00 부산 창업

카페 부경대 대연점 / 접수: 9.4(화) 18:00까지

대상 : 사회적기업 창업 희망자 등 30명 내외

교육비 : 전액 무료(교재 포함)

신청방법 : 남구 홈페이지(www.bsnamgu.go.kr)

수강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holairene02@gmail.com) 제출 / 문의 : 010-7633-0258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및 전문상담사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net/catholic-sinhak) / 문의 : 462-0334

(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교육·모집·기타

들꽃마을 부산 영성 강의 및 미사

· 8.27(월) 14:00 / 문의 : (054)955-4133~4

· 부산종합사회복지관(방미성당 옆)

지도 : 최영배 신부(영성강의, 미사 주례)

영원한 도움의 성모 9일 기도와 미사

· 8.28(화) 14:00 · 서면성당

교리강의, 미사 전후 고해성사

주례 : 구속주희 신부 / 문의 : 010-7132-6379

이태석신부 참사랑실천사업회 후원회 미사

· 9.1(토) 10:00 · 송도성당

문의 : 241-1601, 253-1601

성분도은혜의집 음악피정

· 9.20(목) 10:00~16:30 · 성분도은혜의집

대상 : 하느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분

문의 : 753-5744 (선착순 접수)

해외선교후원금 마련 바자회

· 9.8(토) 10:00~18:00 / 문의 : 581-3103

·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부산 본원

부산 마리아 학교 수강자 모집

낮반 : 9.4~2019.2.26 매주 화요일 14:00~16:00

저녁반 : 상동일 19:00~21:00

청년반 : 9.3~매주 월요일 19:00~21:00

· 마리아 피정 센터 / 회비 : 15만원(분납 가능)

내용 : 성경 속의 마리아(전례, 역사), 영성, 사도직, 발현 등 / 문의 : 010-4940-4819, 634-4845

성바오로수도회 <말씀으로 마음치유>

· 9월부터 10주간 · 가톨릭센터 1층 성바오로 서원

오전반 월 10:00~12:30, 저녁반 목 19:00~21:30

대상 : 30대~60대 남, 여 / 문의 : 521-8898

다네이 글방 <하느님을 향한 책읽기와 글쓰기>

· 매월 두번째 금요일 14:30~16:30(무료)

· 호빈의 집(부민동) / 문의 : 010-9503-1127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10.29(일) ~11.13(화) · 서유럽, 발칸

· 11.22(목) ~12.5(수) · 서유럽, 스페인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한티순교성지 피정

· 9.8(토) 16:00~9(일) 13:00

주제 : 영적충만(영성피정)

강사 : 배형진 신부(말씀의선교수도회)

문의 : (054)975-5151

목포가톨릭대학교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및 인원 : 간호학과 86명, 사회복지학과 16명, 유아교육과 14명 / 원서접수 : 9.10(일)~14(금)

인터넷 원서접수처 : 유웨이

입학상담 및 문의 : (061)280-5108, 5150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 9.5(수)~19(수) · 양업고등학교

문의 : (043)260-5076, 507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국내 입양) 입양 상담 및 미혼모 상담

문의 : (02)764-4741~3, www.holyfcac.or.kr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 시	장 소	문 의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9.2(일) 14:00	부산 분원	010-6271-4110
성골룸반외방선교회	9.2(일) 10:00	서울 돈암동 본부	02-924-3048
한국외방선교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010-2730-8691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18학년도 2학기 수강생 모집

장정애의 "맛있는 글짓기" 레시피 (지도교수 : 장정애)
9/7(금)~11/23(금) 매주 금요일 14:00~16:00 (총 12주)

아로마 치료 입문반 (지도교수 : 권경옥 외)
9/5(수)~11/21(수) 매주 수요일 18:30~21:30 (총 10주)

문의 : 510-0951~3, edu.cup.ac.kr

입학처 : 051-510-0701~4 / www.ipsi.cup.ac.kr

부산성모병원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맡기암환자의 통증 조절 및 환자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도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

문의 : 933-7969(가정형 호스피스)

 **가톨릭부산성모병원**
복음문화나눔 행복한 세상

무료영화상영
일 시. 9/17(월) 19:00
장 소. 가톨릭센터 소극장 (예술전용관C&C)

요한 묵시록
(더 바이블 시리즈)
바티칸이 출판하는 더 바이블 시리즈 중 요한 묵시록 편
18:00 후원 감사 미사(센터 경당) / 다과 / 영회 관람
가톨릭센터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증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이정미(노엘라) 851-4545, 634-4539 박 정 희(요셉), 손 혜 경(요세파) 010-8661-3631, 010-3558-3630 범일동역 12번 출구 중앙귀금속상가 125호	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성모 치과 원장. 송 치 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	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 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	갑상선·당뇨·고열압·골다공증 김용기내과의원 [충무동 구. 김동수 내과] 원장. 김 용 기(T. 아퀴나스) 전 부산의대 학장 외 내과전문의 8명 상담 및 예약 245-7100	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렛따) 758-1100 지하철 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홍조·에스테틱
제이스 귀금속 최신형 패션제품, 예물과 커플링 목주반지, 남성용 주얼리 전문매장 633-4549, 634-4539 박 정 희(요셉), 손 혜 경(요세파) 010-8661-3631, 010-3558-3630 범일동역 12번 출구 중앙귀금속상가 125호	동래 참사랑요양병원 광안 :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아네스)	미래고속관광 45인승/리무진 관광버스 22대 성지순례, 결혼식, 각종행사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 대표. 우 종 한(리차드) 055-333-6300, 010-3720-0303	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핫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 숙 현 (에스텔) 611-3339 남천 지하철역 3번 출구, 대남빌딩 5층	더고운 피부과 의원 피부질환, 기미, 색소, 레이저, 필러 보톡스, 리프팅, 여드름, 모공, 흉터 피부과 전문의 정 세 원 (마 태 오) 558-7575 온천장역 동래홈플러스 (뒤면) 우성빌딩 3층